

이 資料는 12.12(월) 08: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참고로 이 자료는 실제 부총리님의 강연내용과 다소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	報 道 參 考 資 料	생 산 일	2005년 12월 11일
		생산부서	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
		담당과장	추경호(2110-2401)
		담 당 자	최용호(2110-2409)

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
 (05.12.12 08:00, 롯데호텔)

최근의 금융여건 변화와 정책방향

2005. 12. 12(월)

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
 한 덕 수

목 차

- I. 인사말씀 /1
- II. 금융의 역할과 그간의 변화 /2
- III. 금융을 둘러싼 여건 및 변화요인 /9
- IV. 금융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 /13
- V. 금융경영인에 대한 당부사항 /25
- VI. 맺음말씀 /31

I. 인사 말씀

- 안녕하십니까? 재정경제부 장관 한덕수입니다.
- 우선, 연말을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이런 자리를 마련하느라 수고하신 금융연구원 최홍식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
- 우리 금융의 현장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금융기관 경영인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가우며

* 참석자 : 은행 · 증권 · 보험 · 여전 · 저축은행 등 각 협회, 금융기관 임원 200여명

-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계획해야하는 시점에서 여러분과 함께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함
-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의 짧은 호흡에서 벗어나
 - 대략 10년 정도의 앞을 바라보며 금융선진화라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함
 - 여러분들도 당장의 현안을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조금은 먼 미래를 바라보며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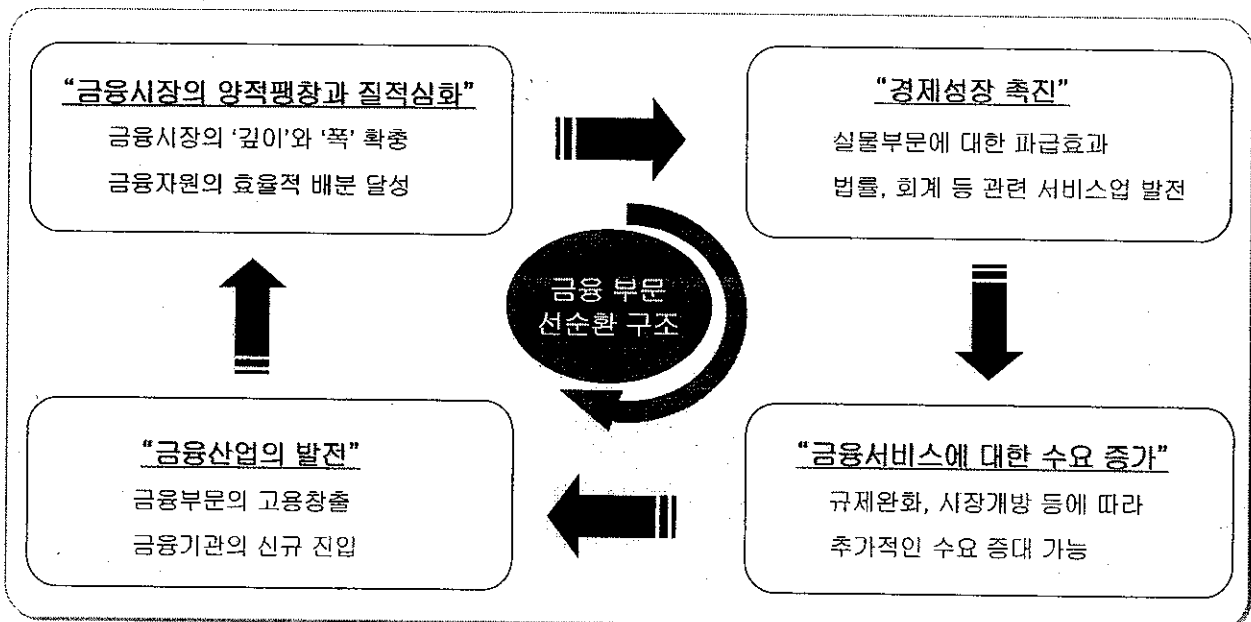
II. 금융의 역할과 그간의 변화

1. 금융의 역할

□ 금융의 역할에 대한 2가지 측면

- (경제시스템의 혈액) : 실물산업을 지원하는 시스템
 - 경제주체간에 원활한 자금중개 기능을 수행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안정적 경제성장·발전을 지원
- (산업으로서의 금융) : 핵심 서비스 산업의 하나
 - 자체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 경제활동의 한 분야를 형성

<참고> 실물경제와 금융의 선순환 흐름



2. 우리 금융의 긍정적인 변화

□ 97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 금융시장의 안전성과
금융산업의 건전성은 환골탈태 수준으로 개선

(실물산업을 지원하는 금융시장 측면)

① 2005년은 1997년 이후 끊임없이 발생했던 대규모
시장 불안요인*이 없었던 한해

* 종금사 문제('97~'98년), 은행부실('98년), 대우그룹 문제('99년)
투신사 환매사태('00년), 코스닥시장 폭락(01년),
SK글로벌 문제('03년), 카드사 문제('03년), 신용불량자('03~'04년) 등

② 위기시 급격히 추락했던 대외신인도가 크게 개선,
국가신용등급은 예전의 수준에 근접해 가고 있음

※ [S&P] (95.5) AA- → (97.12) B+ (10단계 ↓) → (05.7월) A (8단계 ↑)
[Moody's] (97.8) A1 → (97.12) Ba1 (6단계 ↓) → (02.3월) A3 (4단계 ↑)
[Fitch] (96.6) AA- → (97.12) B- (12단계 ↓) → (05.10월) A+ (11단계 ↑)
※ 외평채 스프레드(bp): (98년말) 375 (01년말) 235 (03년말) 113 (05.11말) 64

③ 1,000p 박스권속에 상당히 오랜기간 묶여있던 주식
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며 1,300p*를 상회

※ 종합주가지수의 큰 흐름:
(89.4월) 1,007 → (92.8) 459 → (94.11) 1,138 → (98.6) 280 → (00.1) 1,059
→ (01.9월) 468 → (05.3) 1,024 → (05.4) 911 → (05.12.9) 1,317.4

(금융산업 발전 측면)

- ① 금융시장이 안정된 것은 수많은 부실금융기관과 부실채권의 신속한 정리 등을 통해 대내외로부터 우리 금융산업이 신뢰성을 확보한 결과

※ 금융기관수 : 97말 2,101개(은행 33개) → 05.9말 1,343개(은행 19개)
 은행의 BIS 비율 : 97말 7.0% → 05.9말 12.8%
 은행의 부실여신 비율 : 97말 6.0% → 05.9말 1.5%

- FLC 도입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경영을 하고, 공시·회계제도를 선진화했으며, 사외이사 도입 등 지배구조 개선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

- ②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지주회사가 출범했고, 세계 100대 은행에 진입하는 은행들도 속속 나타남

※ 금융지주회사 : 01년 이후 4개 설립 (우리, 신한, 한국(동원), 하나)
 ※ 국내 은행의 세계 순위(자산 기준, 억불)
 (97년말) 외환: 170위(397), 국민: 215위(277)
 (04년말) 국민: 72위(1,766), 신한지주: 85위(1,418) 농협: 95위, 우리지주: 101위

- ③ 금년에는 모든 금융업권들이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, 은행권의 순이익은 9월까지 이미 10조원을 넘는 등 금융산업의 수익성이 한층 개선됨

※ 은행, 증권, 보험의 당기순이익 추이
 은행: (00년) Δ4.1조원 (01년) 4.6 (02년) 5.0 (03년) 1.8 (04) 8.8 (05.1~9) 10.5
 보험: (FY03) 2.2조원 (FY04) 3.2 (05.4~9월) 1.9
 증권: (FY03) 1.2조원 (FY04) 0.3 (05.4~9월) 1.3

3. 변화속에서 미흡했던 측면

- 금융의 수익성이 제고되고 안정성이 강화되는 것이 곧바로 금융의 선진화와 금융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

(실물경제를 지원하는 금융시장 측면)

① 금융의 자금중개 기능의 약화

- 금융의 핵심역할은 실물경제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다양한 자금 수요처에 적절히 자원배분을 하는 것이나

☞ 리스크를 관리하고 상품화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금융의 본질적 역할이며, 리스크를 회피만하고 리스크가 거의 없는 것만을 취급하는 금융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임

- 금융기관이 건전성에 치중하여, 위험이 좀 있으나 성장성이 높은 기술집약형·차세대 성장산업 등에 대한 자금중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함

※ 은행의 자산운용을 보면 과거에 비해 장기시설자금 대출비중이 감소하고, 국공채 매입 등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

· 은행 장기시설자금 대출비중 : (98말)16.8% (00말)12.3 (02말)11.6 (04말)10.3

- 경제 부문간 적절한 자금중개 기능이 약화된 결과 시중에 부동성 단기자금이 증가하는 모습

☞ 금년들어 단기수신비중이 급증했으나 최근 9월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, 정기예금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로 전환

※ 단기수신 비중 : (97) 34.8% (99) 40.4 (01) 47.2 (04) 49.4 (05.9) 52.4 (05.10) 51.5

② 경제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자금배분의 양극화

- 리스크가 적거나 특별한 리스크 관리·분석이 필요치 않은 대기업·중견기업이나 부동산 담보 위주로 금융중개기능을 수행

⇒ 대·중소기업, 고·저소득층간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

③ 소모적 경쟁과 쏠림현상(herd behavior)

- 금융기관의 시계(視界)가 단기적이고 국내에 한정됨에 따라 협소한 국내시장에서 유사한 영업방식에 의한 소모적 경쟁을 야기
- 쏠림현상(herd behavior)으로 신용카드 문제, 신용불량자 문제, 주택담보대출 문제 등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

※ 쏠림현상으로 인한 위기사례(systemic risk)

- 97년이전 대기업 편중여신 → 외환위기
- 99년 벤처열풍(Buy Korea) → 코스닥 폭락, 투신사 유동성 위기
- 00~02년 신용카드 경쟁 → 가계부채 위기, 신용불량자 양산
- 02~03년 중소기업 대출경쟁 → 신용위험증대 및 신용경색

<참고> 97년 이후 우리 금융의 특징 및 문제점

특징

□ 과도한 안전 자산 선호

- 외환위기 이후 건전선 중시 경향 확산
- 금융기관의 Risk 관리 능력 부족
- 금융기관의 낮은 여신심사능력 및 신용평가 능력

□ 직접 금융시장의 위축과 간접 금융 (특히, 은행) 비중의 확대

- 안전자산 선호에 기인
- 겸업화 대형화로 은행의 자산규모와 영향력이 크게 확대
- 자본시장에서 은행, 투신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 미흡

□ 단기자금의 증가

- 경기둔화 및 안전자산 선호로 인한 전반적 수익률 감소에 기인
- MMF 등 새로운 단기 금융상품의 출시 등 금융의 선진화에도 기인

□ 금융기관의 쓸림 현상

- 무차별적 영업경쟁
- 개별이익 추구행위가 전체의 위기를 야기 (구성의 오류)

문제점

□ 금융의 자금중개 기능 왜곡

- 위험의 스펙트럼을 반영하는 다양한 금융상품 부족

□ 금융시장의 수익률 하락

- 경제전반의 수익률(경제성장율) 하락

□ 자금중개의 다양성 감소

- 금융수단이 안전자산 위주의 은행상품으로만 구성
- 금융업종별 특유한 금융서비스의 감소, 단순화로 자금 중개기능 약화

□ 자본시장 발달 저해

□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대

- 부동산투기 등, 수익률을 쫓아 급격히 이동할 가능성

□ 장기 생산자금 공급 부족

- 경제전반의 수익률(경제성장율) 하락

□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야기

- 투신사 유동성 위기('00.7월)
- 카드채 환매사태('03.11월)
- 가계금융 급증, 중소기업 여신 확대 : 연착륙 관리중

(금융산업의 발전 측면)

① 우리 금융산업 경쟁력의 현주소 :

- 국제적 경쟁의 심화됨에 따라 실물부문을 선도하기에는 금융부문의 경쟁력과 성숙도는 여전히 미흡
-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국내 여타 산업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고, 선진국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

※ (IMD) 전체 국가경쟁력 : (05년) 29위, 금융부문: (05년) 38위

- 실물경제에 비하여 직·간접 금융시장의 규모·발전도 등이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상태
- ### ② 최근 금융업권 이익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나,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지는 못함
- 총자산수익률, 직원 1인당 순이익 등이 선진 금융기관에 비하면 아직은 낮은 수준
- ### ③ 금융산업의 경제성장·부가가치 창출 기여도 미흡
- 우리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기여도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은 선진국 또는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
 - '97년 경제위기이후 개별 금융기관은 구조조정을 통하여 비용구조를 효율화하여 생산성·수익성을 높여 왔으나, 새로운 상품개발, 새 영역에 대한 진출, 신규직원 확대 등은 부족하여 금융산업 전체로는 고용규모가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냄

Ⅲ. 금융을 둘러싼 여건 및 변화요인

1. 실물 경제·사회의 변화

① 점진적인 경기회복 추세

- 최근 우리 경제는 그동안의 오랜 부진에서 벗어나 회복세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

-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성장이 예상

※ 실질 GDP(%) : (03) 3.1 → (04) 4.6 → (05.1Q) 2.7 → (2Q) 3.3 → (3Q) 4.5

실질 GNI(%) : (03) 1.9 → (04) 3.8 → (05.1Q) 0.5 → (2Q) 0.0 → (3Q) 0.1

* 향후 경제전망(한국은행) : 실질 GDP ('05) 3.9% ('06) 5.0%

- 다만, 내년에는 국제유가, 미국 경기둔화 가능성, 환율변동 등의 잠재적 위험요인이 있어 강한 경제 회복세를 낙관만하기는 곤란

- 수출주도의 성장, 금융중개 기능의 약화 등으로 '수출'과 '내수'(투자) 및 '생산'과 '소득' 사이의 불균형이 계속될 경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

② 장기적 성장 잠재력의 둔화

- 경제규모의 확대 · 경제구조 고도화 등 경제 발전 과정에서 겪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,
 - 경제구조의 변화과정 속에서 정부, 가계, 기업, 금융 등 경제주체의 대응미흡에 따른 현상일 수도 있음
- ☞ 소득 1만불대 싱가포르 및 대만은 연평균 약 6%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했으며, 거대 중국은 현재 약 8%대의 성장을 지속중

※ 잠재성장률 전망
 (KDI, 2003) : (80년대) 7.8% (90~94) 6.6% (95~99) 6.0%
 → (03~07) 4.8~5.4% (08~12) 4.5~5.1%
 (한은, 2005): (91~20) 6.1% (01~04) 4.8% → (05~14) 4.6%

- 장기적인 잠재성장률의 둔화는 금융자산의 평균적 수익률 감소와 금융기관의 수익기반 약화를 의미
 - 금융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수익률 제고가 필요

③ 고령화 · 라이프사이클(Life-Cycle)의 변화

- 경제에서 실버세대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

※ 고령화사회(노령인구 7%) 2000년 → 고령사회(노령인구 14%) 2019년
 → 초고령사회(노령인구 20%) : 2026년

- 이미 개인 · 가계는 고령화를 인지하고 대응중
 - 교육 · 저축 · 소비 패턴의 변화가 발생
- 다양한 세대별, Life-Cycle별 금융상품의 세분화 및 고객의 수요(needs)에 대한 정확한 지식 · 분석 필요

2. 세계적인 금융 흐름의 변화

① 글로벌화와 경쟁심화 :

- 최근 세계경제는 시장개방을 통하여 국가간 경계가 철폐되고 국제간 자본거래가 자유화
 - 개방·자유화로 인한 다수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출현 가능성은 글로벌 규제완화와 무한경쟁을 가져옴
 - 국내적으로 외국자본의 진출이 증대하나, 국경·이념을 앞세운 자국산업 보호는 더 이상 곤란
 - 금융산업에 대한 직접적 규제는 자국 금융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유발
 - 글로벌 규제완화 경쟁이 확산되는 추세
 - 세계경제 통합, 신속한 자본이동, IT발전 등으로 국경을 초월하는 네트워크를 갖추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만 선진 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생존 가능
- ⇒ 앞으로는 국내든 해외든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한 규제와 경쟁만이 가능

② 디지털화·기술혁신 :

- IT를 활용한 실시간 거래의 확대로 세계 금융시장의 통합화·동조화 현상이 가속화 (24시간 금융시장)

- IT기술 발전은 지식서비스 산업인 금융산업의 비용과 서비스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
 - 지속적인 전자금융기술의 개발과 IT에 대한 대규모 투자 없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곤란해짐
-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점포중심에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고객중심으로 금융산업의 경쟁환경이 변화

③ 금융의 겸업화 · 대형화 :

- 규제완화, 글로벌화 등은 금융회사의 수익환경을 변화시켜 선진 금융기관들은 대형화를 적극 추진

※ 세계 5대 은행의 자산규모 변화(조불)

(96년) 도이치: 0.51, 산와(일): 0.50, 스미모토(일): 0.49, 다이치강교(일): 0.48

(04년) UBS: 1.53, 씨타: 1.48, 미즈호(일): 1.29, HSBC: 1.27, 아그리폴(프) 1.24

- 규모의 경제 · 범위의 경제 효과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겸업화는 글로벌 경쟁속에 더욱 가속화
 - 전통적으로 전업주의를 채택해온 미국 · 일본 등도 금융업권별 장벽을 낮추어 경계영역이 확대되는 추세

* 미국 : 엄격한 전업주의에서 벗어나 금융지주회사 형태의 겸업화를 허용
(99년 Gramm-Leach-Bliley 법안 통과)

* 일본 : 98.6월 금융시스템 개혁법을 통해 금융지주회사 설립 허용

- 공급자 위주의 금융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서
 - 금융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(needs)에 따른 최적의 상품 · 서비스를 one-stop으로 제공하게 됨

V. 금융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

1. 금융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과 금융선진화

□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엔진

- 반도체, 자동차, 철강 등 주력산업의 국제경쟁이 격화되고 중국 등 후발국이 무섭게 추격중

⇒ 21세기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 엔진의 발굴이 필요

- ① 미래지향적 장기투자를 지원하고 생산성 향상이 높은 기술집약적 혁신형 기업의 발굴·지원이 필요

☞ (97년 이전) 금융기관들이 산업금융·정책금융이라는 명목아래 안정성은 도외시하고 성장성 위주로 금융지원

(98년 이후) 금융기관이 재무건전성을 우선시하여 미래성장성 보다는 단기적인 회수가능성, 안전성 위주로 대출·투자

- ② 우수한 인적자원, 발전된 IT인프라 등 감안할 때 지식기반 산업이 미래 성장의 동력이 되어야 하며,
- 금융산업 자체가 핵심 지식산업의 주요 축으로서 경제성장에 기여할 필요

□ 금융 선진화 :

- (금융산업 측면) 금융기관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어 적절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면서
- (경제혈맥 측면) 금융 소비자인 경제주체들에게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적절한 가격에 양질의 금융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

2. 실물경제·산업과 금융의 연계 강화

① 자본시장의 발전 및 활성화

① 글로벌화·디지털화로 세계가 하나의 금융시장으로 변화되어 가는 추세속에서 자본시장의 발전 없이 국가 경제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는 불가능

- 다양한 금융이용자의 수요(needs)에 부합하면서 경제·자금중개의 역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증권화*가 필요

* 대출 등 양도가 어려운 상품보다는 표준화되어 다수 참가자간에 유통(transfer)될 수 있는 증권형 금융상품이 자금의 조달과 운용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추세

○ 과거에는 은행대출이 산업금융의 주축이 되었으나,

- 최근 대기업은 은행을 통한 대출은 감소하고 직접 금융시장을 통한 조달이 늘고 있음

② 정부는 「자본시장 중심의 자금흐름 선순환 체계 구축*」을 지속적으로 추진중

※①기관투자자 육성: 자산운용업법 제정(04.1월), 사모투자펀드(04.12월) 연기금의 주식투자허용(05.1월), 퇴직연금제 도입(05.12월)등

②다양한 주식투자수요 확충: 배당지수(03.7월), 분기배당제 도입(04.3월) 일부 원금보장형 실적투자상품(Equity Linked Security) 판매(03.3월) 등

③시장의 효율성 제고: 통합거래소 설립(05.1월), M&A시장 공정성·투명성 제고(05.3월 증권거래법 개정·시행) 등

③ 자본시장 관련 금융법을 통합

※ 자본시장관련 금융법 : 증권거래법, 선물거래법,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, 신탁업법,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등

- 자본시장에서 영위·취급할 수 있는 금융업·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를 철폐
- 증권, 투신, 신탁 등 자본시장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금융투자회사(IB)의 육성을 추진
- 조합·투자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간접투자펀드* 운용이 가능토록 허용

※ 현재는 투자신탁·투자회사·합자회사로 간접투자펀드의 유형을 한정

- 자연재해, 날씨, 경제·사회 현상 등 모든 변수를 기초로 하는 파생적 금융투자상품을 허용
- ⇒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하여 금융시장에서의 Big Bang을 유도

※ 자본시장 통합법의 기본방향

-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간 겸영을 인정
→ 금융투자회사(IB)의 육성
- 기능별 규율체계 : 동일한 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
- 포괄적 규율체계 : 사실상의 negative 규제시스템
: 금융상품을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기존의 열거주의 방식에서 탈피

- (향후계획) 금년 12월말까지 정부시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

② 금융시장의 자금중개기능 강화

① 금융시장의 경쟁을 통하여 자원이 적절히 배분되고 경제문제가 해결되는 금융선진화를 위해서는

- 정보의 비대칭성(information asymmetry)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

☞ 중소기업의 설비투자가 확대되지 못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장기·신용대출이 부족한 것은

- 우량한 중소기업의 수익성·리스크를 분석·관리할 수 있는 신용정보가 생산·유통되지 않아(정보의 비대칭성),

- 금융기관이 위험회피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지 않고, 비대칭적 정보의 문제가 적은 부동산 담보대출에는 쏠림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임

○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한 시장불균형, 금융기관의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

- 기업공시제도, 회계제도를 지속적으로 선진화하고, 기업 및 개인 CB 등 신용정보 평가·유통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

- * 기업정보의 공시주기 단축 및 내용 확장으로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
- * 금융기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를 위한 국제회계기준 적합성 유지 및 재무제표 왜곡에 대한 책임 강화
- * 기업CB, 개인CB 등을 활성화하여 정보집중·정보관리 방법 개선에 따른 외부성(positive externality) 극대화
- * 신용평가사의 진입요건 완화, 개방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

② 금융시장에서 소모적 경쟁으로 인한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발전적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

- 다양한 시장참여자에 대하여 적절한 유인체계(incentive mechanism) 제공을 위한 엄격하고 확고한 시장규율(market discipline)의 확립이 필요
- 이를 위해서는 각 참여자별 금융활동의 성과가 시장에서 올바르게 평가되고 보상될 필요
- 금융감독 선진화* 등을 통해 각 경제주체의 금융 질서 위반, 부당행위 등에 대하여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규제·제재를 유지할 것임

※ 금융감독의 선진화

- 금융회사의 수익성 악화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과 선제적 감독
- 잠재리스크 측정 등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
-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능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
-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하여 실시간 시장 감시(real-time surveillance) 능력을 제고

③ 건전성 규제 및 금융이용자 보호 강화

① 정부는 자의적인 사전적 진입·영업 규제는 철저하게 개혁해 나가는 대신에

-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일반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규제는 우리 금융의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개선·강화

② 금산분리와 금융산업의 건전성

○ 97년을 전후해서 부실화된 금융기관은 2가지 유형

- 주인 있는 금융기관 : 재벌기업 등 주인의 무분별한 경영이 부실을 가져옴
- 주인 없는 금융기관 : 책임성 부재로 인한 시장의 신뢰상실

⇒ 현재의 금융감독·금융관행 등을 감안할 때 선진국 수준의 지배구조 및 투명성 개선이 정착되는

- 금융선진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(금산분리) 원칙은 존중될 필요

③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금융상품 판매·거래와 관련된 제도의 정비를 추진

○ 겸업화·증권화·디지털화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상품·서비스가 등장하고, 다양한 채널(방문판매, 인터넷 등)을 통하여 판매됨

- 판매자도 익숙하지 않은 상품*을 지식·정보가 부족한 일반 고객에게 판매할 경우 금융거래에 따른 금융이용자의 피해, 법적 소송 등이 증가될 가능성

* 보험설계사 등의 일부 원금보장형 ELS판매
투자상담사 등의 변액보험 판매 등

○ 정부는 이미 전자금융, 간접투자상품 판매 등과 관련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,

※ 전자금융사고시 책임분담 등 전자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을 국회제출: 재경위 금융소위 통과(05.12월)

※ 준비중인 자본시장 관련 통합법(안)에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상품 설명의무, 공시 의무 등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

○ 다른 나라의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,

- 다양한 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에 따른 금융이용자 보호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전문가 등과 함께 검토할 예정

3.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노력 가속화

① 상시적인 금융규제 개혁

◇ 다양한 금융수요(needs)에 부합하는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금융회사의 영업활동의 촉진

- 지나친 규제와 감독은 시장에 의한 금융산업의 경쟁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

① 정부는 재경부 소관의 640여개 규제, 금융감독 관련 규제 등 모든 금융관련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증하여 1차 101건의 개선과제를 발굴

-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시적인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할 계획
- 또한, 금융규제의 D/B를 구축·개방하여 규제개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

※ 05.5월부터 연구기관·학계·업계 전문가 등으로 13개 T/F를 구성하여 1차 규제개혁 작업을 진행

⇒ 검토결과, 19개 법령의 101건의 개선과제 발굴

- 금융회사의 영업활동 관련 규제 완화
 - * 보험설계사 등에게 펀드 취득 권유 허용, 은행의 일반상품 파생거래 허용 등
- 금융회사의 진입규제 완화
 - * 신용평가업 진입요건 완화, 금융지주회사 인가제도 개선 등
- 업종간 규제 형평성 제고
 - * 상호저축은행의 점포설치 제한 완화 등
- 실효성 상실 규제 정비
 - *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제도 폐지 등

② 이러한 규제개혁의 밑바탕위에서 금융관련 법률 통합을 추진하여 규제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혁

○ 업종별 동일기능을 일관되게 통합하고,

- '동일 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규율'하는 기능별 규율 규제체계로 전환하여 금융규제를 전면 혁신

○ 취급가능한 상품·허용행위를 열거하는 positive 규제방식을

- '원칙 허용·예외 제한'의 포괄주의·negative 규제 방식으로 변경하여

-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창의적인 상품개발이 가능한 영업환경을 유도

< 금융관련 법률 통합법 체계 >

	진입규제	건전성규제	영업 행위규제	기타
은행법				
자본시장 통합법				
증권거래법	1편 설립 및 업무영역	2편 자산운용 및 감독	3편 행위규제	4편 증권발행, 유통 증권선물거래소 간접투자 특례 성장법인 특례 협회등 유관기관
선물거래법				
자산운용업법				
신탁업법 및 중금법 등				
보험업법				
가칭 금융법				

② 금융산업의 균형발전 추진

◇ 97년이후 위기극복과정에서 금융시스템의 근간인 은행의 구조조정에 우선 공적자금이 지원되고

- 위기이후 과도한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나타남에 따라 은행상품 위주로 금융산업이 확대
- 은행·증권·보험의 3대 영역이 골고루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융산업의 불균형 문제가 제기

⇒ 간접 금융시장의 은행업, 자본시장의 증권·투신업, 보험시장의 보험업의 균형 잡힌 발전을 추진

① 은행 :

- 대형화·겸업화를 통한 폭넓은 판매채널을 활용하여 종합금융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유도
- 선진금융기관과 국내외에서 경쟁을 통하여 세계적인 금융기관으로 성장·발전

② 증권·투신 :

- 자본시장 활성화의 핵심 중추 역할을 수행
- 겸업화 확대 등을 통해 '금융투자회사'(IB)로 육성

③ 보험산업 :

- 장기 자산운용산업으로 국민 복지수요를 민간 차원에서 보완하는 사회안전망의 한축을 담당하는 산업으로 육성
- 금융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 보험산업은 아직까지는 금융시장에서의 역할이 제한적이지만, 향후 발전의 여지가 큼

※ 보험업권과 은행업권의 자산규모 비교(05.9말)

- 보험사 전체 : 270.7조원 (생보사: 224, 손보사: 46.7)

- 은행권 전체 : 1223.6조원 (국민은행: 199.3, 우리은행: 135.1)

⇒ 금융겸업화·통합화 추세에 따라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업계 및 관련전문가 등과 함께 강구할 계획

- Life-cycle 변화, 복지 수요의 증대에 맞추어
 - 보험산업을 다양한 장기 금융상품·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발전
- 고령화에 따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역모기지* 제도의 활성화 추진

※ 보유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 자금을 연금형태로 받아 생활안정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는 제도

③ 동북아 금융허브로의 발전을 추진

- 금융산업을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금융허브로 발전시키는 정책 추진
-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동북아 금융허브는 단순한 지향목표가 아니고 **우리 금융산업의 생존전략**

※ 2007년 금융허브 기반 구축,
2010년 자산운용업 중심의 “특화금융허브” 완성,
2015년 아시아 지역 3대 금융허브로 발전

<참고>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

- ① **금융허브 인프라를 구축하고 투명하고 개방된 선진형 금융 시스템 구축**
 - 금융규제완화, 외환 자유화, 금융통합법 제정, 금융감독 시스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
 - 국내·외 시장참여자간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
- ② **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**
 - 외환보유고, 연금 등 풍부한 자산운용수요를 활용하여 자산운용산업을 육성
 - 금융전문대학원 설립, 금융인력 네트워크센터 운영을 통하여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
- ③ **금융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**
 - KIC 등을 활용한 외국 금융기관의 한국진출을 유도
 - 동북아 개발수요 참여 등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
 - 홍보활동 및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활동 강화

IV. 금융경영인에 대한 당부사항

(실물경제 · 산업과 금융의 연계 강화)

1. 쏠림행태(herd-behavior)의 지양과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한 자금중개 기능의 강화가 필요

- ① 국내 금융시장의 폭과 깊이가 작고 낮은 상황에서 남 따라하기식 경영은 소모적 경쟁에 따라 동반 부실을 초래할 우려
 - 우리는 종금사 외환위기, 신용카드 부실 등을 통해 뼈아픈 경험을 한 바 있음
 - 근시안적 경영으로 단기적 이익에 급급하여 또다시 이를 반복하는 금융경영인은 이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
- ② 금융은 경제성장 · 발전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분야로서 성장주도형 산업에 대한 지원은 필수
 - 효율적인 리스크 파악 · 관리 · 이전(transfer) 등을 통해
 - 다소 리스크가 높을 수 있으나,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이 가능한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함
 - 기존의 우량 고객에 대한 수동적 지원에서 벗어나,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잠재적 우량 고객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금융기관도 장기적 성장이 가능

<참고> 금융기관의 상업성과 공공성의 조화

- ◇ 단기적으로 상업성에 입각한 수익성 추구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요구하는 공공성과 상치될 수 있으나,
 -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의 성장을 생각하면 상업성과 공공성은 조화가 가능한 목표

(공공성①) 금융기관의 부실경영 방지

- 금융산업은 국제적 수준의 수익성을 확보하여 공적자금 등 국민 부담을 야기하지 않는 신뢰를 확보해야 함
 -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는 금융시장과 경제안정의 기본
- 부실을 방지할 수 있는 Risk management, Compliance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을 보다 강화
 - 금융기관 종사자의 도덕성*도 확보되어야 금융기관에 대한 고객의 신뢰가 유지

※ 금융기관 종사자의 신분불안, 수익성 강조 경영행태 등에 따라 금융기관 내부자에 의한 금융사고가 빈발

- (05.7월) 은행 직원의 CD 위조 : 850억원
증권회사 직원의 고객정보 유출, 부당인출 : 2.2억원
- (05.5월) 은행 직원의 횡령·자금용용 : 400억원
- (04.9월) 캐피탈 임원의 자금 횡령 : 473억원
- (04.4월) 카드사 직원의 고객예금계좌 부당인출 : 400억원 등

(공공성②) 자금중개기능 강화 : 경제발전의 토대

- 금융의 본질적 기능은 자금중개 기능이며, 리스크를 관리·상품화하고 분산시키는 것이 금융의 역할
- 중소기업, 혁신기업, 미래성장 기업 등 리스크가 높은 기업을 무조건 회피만 할 것이 아니고
 -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하여 리스크가 높으면 높은대로 낮으면 낮은대로 가격을 책정하여 자금이 공급될 수 있는 금융상품과 시장을 개발할 필요

(공공성③) 고객 기반인 국민과 함께 발전

- 사상 최고의 수익, 주가를 운운하기에는 우리 경제에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음
 - 현재의 금융권의 수익성·건전성에는 공적자금 등 국민의 도움이 있었고,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원했던 기업들의 희생이 바탕이 되고 있음
- 영세기업, 취약계층도 결국은 금융회사에 수익을 창출해 줄 수 있는 고객
 - 국민의 20%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금융회사가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는 없을 것임
- 최근 금융기관이 사회공헌기금 등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향은 바람직
 - 나아가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·서비스를 개발하는 노력도 당부

2. 자율적인 시장규율의 정립과 시장 친화적인 위기 관리시스템 정착

① 금융기관이 시장에서 누리는 영업자유에 상응한 자율적인 책임과 시장규율의 정립이 필요

- 흔히 인체의 **혈맥**으로 비유되는 금융은 중요성만큼 그 **취약성***도 높은 산업이며, 외부 감독만으로는 한계

※ (예) 은행의 BIS비율 8% ⇒ 12배의 레버리지를 의미
신용카드사의 사채발행한도 : 자기자본의 10배

○ **쏟림현상, 소모적 경쟁** 등으로 **부분적인 부실요인이 시스템 위험(system risk)으로 파급되지 않도록**

- 금융시장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금융경영인 여러분 스스로의 **엄정한 시장규율의 정립과 준수**가 필요

☞ 선도 금융기관 경영인들의 자율적인 지도력 발휘가 없다면 개별 리스크가 시스템리스크로 변화하여 금융당국의 개입이 불가피하고 이는 다시 시장규율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음

② **개별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시장 자율에 맡기되,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되지 않도록 사전적 감시 (surveillance) 기능은 강화될 필요**

-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안정적인 금융시장 환경을 조성
- 시장과 정부는 긴밀한 대화·협조를 통해 시스템 위험(System risk) 문제를 해결할 필요

(21세기 금융선진화를 위한 혁신적 자세)

3. 경쟁을 두려워하지 말고,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여 발전적 경쟁을 활성화할 필요

① 칸막이식 라이선스의 보호속에서 렌트추구를 통한
수익확보 전략은 zero-sum game으로 귀결

○ 글로벌 경쟁시대에 단순한 따라하기는 곤란

- 창조적 도전(frontier), 끊임없는 진화만이 생존요건,
경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함

○ 겸업화·대형화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다양한 금융
수요에 부응한 금융상품을 개발

- 금융서비스 사각지대에 대한 전문화·특화전략을
추구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비교우위를 확보하려는
노력도 필요

② 외국 자본·금융회사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

○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한 칸막이는 더 이상 곤란

- 금융회사의 장기적 생존차원에서 전략을 마련

- 국내든 해외든 선진 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살아
남지 못한다면 금융선진화는 불가능

- 자본의 국적에 따라 진입이 제한되거나 차별화된 규제는 없을 것임
- 시장질서의 위법이나 부당행위는 대상에 관계없이 철저히 감시하고 대응할 것이며,
- 국내자본이 외국자본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

4. 장기적으로 판단하여 투자하고 인재를 길러야 함

① 금융은 단기적인 이익·손실에 따라 그 성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님

- 단기적인 수익에 집착하지 말고 금융기관의 장기적 성장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·발전시키는 데 노력

○ 금융은 서비스 산업이므로 금융선진화를 위해서는 관행과 소프트웨어의 개선이 필수적이므로

- 인내를 가지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개선과 투자를 해나갈 필요

② 서비스 산업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의 미래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양성 등 사람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필요

- 사람을 버리면서 이익을 내는 회사는 오래가지 못하며, 사람을 기르고 함께하는 회사가 장기적으로 성장

VI. 맺음말씀

- 21세기 금융선진화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
 - 정부는 금융선진화를 위한 길을 닦고 신호등을 세우고 경찰관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며, 실제 운전을 하여 목적지로 가는 것은 여러분의 몫임
- 잠시 있다 떠나는 금융기관 CEO의 입장에서 단기 업적이나 외형확대를 추구하기 보다는
 - 선진 금융기관과 경쟁하여 생존해야 하는 금융기관의 입장, 나아가 주주와 종업원 입장에서 서서, 기업가치에 중점을 두는 가치경영을 추구하기를 당부
- 21세기 우리 경제의 도약은 금융선진화가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, 스스로 하시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분발해 주시기를 바램
 - 정부는 금융선진화를 위해 규제·감독자와 시장에 있는 금융경영인과의 공식·비공식적인 다양한 의견교환 지속할 것임
- 여기 계신 여러분의 주도적 노력으로 빠른 시일안에 1등 금융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며,
 - 정부는 그러한 노력을 어떻게하면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항상 고민하고 실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
-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